

제 116 호

사순 제 1 주일

1975. 2. 16.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 감 론 □

사탄아 물러가라!

— 빵과 명예와 권력 —

김 병 엽 신부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는다.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해서 몹시 허기진 예수께 <돌을 빵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는 악마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대답 하신다. 또, “성전에서 뛰어 내려보시오”,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시오”하며 유혹하 극 자에게 “사탄아, 물러가거라!”라고 단호히 말씀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하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인간이기에 명예욕도 있다. 권력도 필요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가끔 이것들을 미끼로 우리를 부정과 악의 길로 유혹하는 것이다.

인간이 물질에 대한 가치를 그것이 지니는 것 이상으로 인정할 때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된다. 또한 그 이하로 천시할 때 그러한 인간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한다. 여기에 인간 처세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시국이 어지러울 때 많은 변절자들을 본다. 대학교수가 돈이나 명예, 권력에 팔려 광대놀음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다. 기업가들도 제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 우리를 웃겨주는 것도 보았다. 그뿐이 아니다.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실망시켜주는 분들도 보았다.

옛부터 어려운 때에 충신이 나오고 효자가 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의 사태에서 많이 보았다. 누가 충신인가를, 서로 애국자라고 우겨대지만 역사의 기록은 정확히 심판을 해준다. 자유당때에 감추어져 있던 부끄럽고 추절스러운 일들이 오늘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게 만든 사람들도 나쁘다. 하지만 그 장단에 허깨비춤을 추는 사람들도 우습다. 이제 도깨비놀음은 그만두자.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제껏 잊고 있던 낡은 옷은 벗어던지고 새롭게 단장할때이다. 아직도 부정한 방법으로 빵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서 애달아하는가? 비록 배고픔이 우리를 죽이려고 날뛰어도, 명예와 권력이 탐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면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거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발 성호나 굿는 허깨비는 되지 말자. 지금은 각자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을 몰아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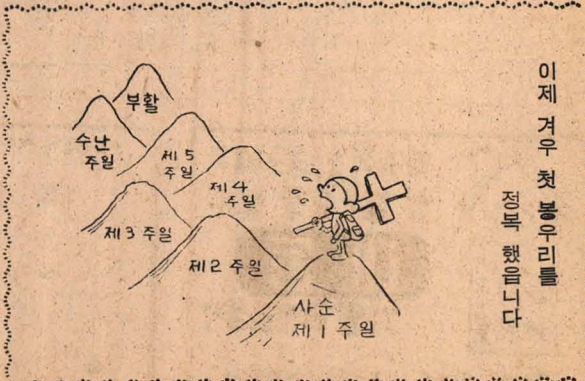
<남원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 (1) 개회식
 - **입당송** 내게 부르짖을 때, 내 그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를 구하여 영화롭게 하리라, 오랜 세월로 그를 가득 채우리라.
 -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창세기 3:7-9, 3:1-7) 원조들의 창조와 죄
 - **창세기** 주여, 당신께 죄를 지었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내 잘못을 말씀히 씻어 주시고 내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
 - **제2독서** (로마 5:12-19 성서 p. 346) 죄가 창궐한 곳에 은총이 넘치게 풍부하다.
 - **복음 전 노래**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다.
 - **복음** (마태오 4:5-11 성서 p.5) 예수께서 40일간 굶으신 후에 시험을 당하시다.
 - **신자들의 기도**
 1. 해마다 사순절로써 성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여, 성 교회안의 잘못을 통회하오며 이 사순절동안 육신의 절제함과 유해한 쾌락을 멀리하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과 고통을 같이 하므로써 사순절을 뜻있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주여, 우리의...
 2.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 갈 것을 생각하시오” 하는 말씀으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사순절의 참 뜻과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 깨달도록 도와주소서 ◎
 3. 부당하게 인권 침해를 받고 고통당하고 억눌려 있으며, 병어리가 되고 눈이 멀며, 귀머거리의 행세로 생활을 해야되는 이 현실의 비참함을, 모든이의 쓰라린 가슴의 맺힘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위로와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

- (3) 성찬의 전례 □ **봉헌** □ **성찬식** □ **영성체송**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입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도다.

* 순정이 산책 *



□ 성체수녀원을 찾아서 □

성체(聖體) 수녀원



〈朴 총장수녀〉

오후 5시 수녀원 현관의 벨을 눌렀다. 노승성당 신축공사장 마저 입을 다문 수녀원 언덕은 마치 밤짓는 연기·자욱한 시골 정경이 연상 되었다. 응접실에 안내된 기자는 모원장 수녀님과 한 시간을 얘기했다.

1. 연 혁(沿革)

“보잘것 없는 네 이웃을 돕는 일이 바로 나에게 배우는 것”이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보자고 모인 여인들이 윤을수 신부님(1972년 作故) 주위에는 불어나기 시작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불우한 산부(産婦)나 환자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외딴섬(落島)에서 사회 사업을 벌여오던 이들 가운데 수도(修道) 지망생들을 모아 〈성체 수녀원〉은 시작되었다. 1958년에 윤을수 신부님에 의해 창설된 수녀원은 1966년에 前 전주교구장이셨던 한공렬 대주교님에 의해 전주로 그 본원을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의회 이후의 새로운 정신에 입각해서, 수도자라는 말을 쓴 위선자가 되기보다는 양갓집 딸처럼 행동하고, 〈수녀〉라 부르지 않고 〈언니〉라고 호칭하라고 가르치신 윤신부님은 남들이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기보다는 훌륭한 점이 너무나 많은 분이라고 수녀님들은 힘주어 말씀하신다. “소란 가운데서 안정을 찾으라”는 윤신부님의 가르침은 알아듣기 어려웠으면서도 맛이 담긴 말씀이란다

2. 기 구(機構)

전국적으로 54개 지방에서 활동하는 227명 수녀님들의 사령탑을 드러다보면 5대 총장이신 박승애(朴勝愛, 미카엘라) 수녀님, 부총장에 신영숙(申永淑, 사라) 수녀님, 비서에 장명길(張明吉, 레지나) 수녀님, 모원장에 김영희(金永姬, 켈루루다), 수련장에 장진숙(張貞淑, 마리아엘마누엘) 수녀님, 시련장에 이행자(李幸子, 요안나) 수녀님들이 분주하게 활동하고 계신다.

3. 활 동(活動)

수녀님들은 주로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학교나 병원, 또는 농장에서 일한다.

특기 할 일은 성남사에서 탁아소와 조산원을 차려놓고 활동하는 일이다. 가난으로 찢든 고장의 불우한 어린이들과 고통받는 엄마들의 벗이 되고자 하얀 까운을 입고 가정방문하고 왕진다니는 수녀님들은 성남사의 화제꺼리라고 김수녀님은 매우 자랑스럽게 귀뜸해 주신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중학 3년과정의 효신 실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관인에는 조그마한 농장도 있다고 한다. 작년부터는 서울에서 유치원을 시작했고, 전주 성체 수녀원 본원에서도 금년부터 유치원을 시작했다

4. 수녀가 되기까지

수녀가 되겠다고 지원하면 1년동안 본원(중노승동361번지)에서 시련(試鍊) 생활에 들어간다. 시련장 수녀의 지도를 받으며 수도생활에 대한 정신교육 등 하루에 5시간의 수업, 3시간의 실습과 기도생활을 한다. 매년 3월이면 새로운 지원자를 받는다. 지원자는 부모의 동의서와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을 가진 20~25세의 여성이다. 이때 가정적인 여건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공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원자는 약간의 지참금(持參金, 이는 불의에 수녀원을 나가게 되는 경우 3개월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위해서이다.)과 지원기간의 개인잡비와 착복식 배의 의류비, 간단한 개인침구와 의류의 준비가 필요하다.

1년간의 시련기간이 끝나면 2년간의 수련(修鍊)생활을 거치게 된다. 서울 수유리에 있는 수련소에서 수련장 수녀의 지도를 받으며, 낮에는 교리 신학원이나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수련교육을 받는다. 현재 본원에는 8명의 지원자가 있고, 서울에는 25명의 수련자가 있는데 금년 6월에 8명이 착복(著服)한다.

수련기간이 끝나면 첫 서원(誓願)을 하는데 그 기간은 1년이다. 첫 서원기간이 끝나면 (3년 서원을 하고, 끝나면) 5년 서원을 한다. 첫 서원을 하고 10년째 되는 해에 종신(終身) 서원을 한다.

5. 문제점들

성적이나 수도의 길은 험난한지라, 역시 제일 큰 문제는 성소(聖召) 부족 현상이다.

또 한가지 배놓을 수 없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이다. 작년, 2,000만원 가까운 총예산 가운데 신명으로 고생하는 수녀들을 위한 의료비가 200여만원, 교육비만도 900여만원이 나갔다고 한다.

재정적인 문제는 역사가 가장 일천한 방인(邦人) 수도회라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조금 더 고생하고 노력하면 밝은 내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되묻는 모원장 수녀님의 마지막 한 마디는 힘이 있었다.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철·도장청부

대릉
지물 페인트상사

사자표 레인로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교형여러분의
부 활 상 회
교형들에게 염가판매 *

남학생...교복(에리트지) 및 모자일절
남자대인...가족잡바, 의류일체
여자대인...친칠라코트,
히말라야 코트

● 전주시 전동, 매곡교사거리
주 원 배(실베들)아를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 지 사 진 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밀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② 6544

□ 양 지 쪽 □



인간적인 책임을

허 등 수(알렉산더)

1월27일이라고 기억되는 모방송의 5분뉴스를 청취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뉴스중에서도 꽤나 잊혀지지 않는게 있다. 아니 쉽사리 잊을 수가 없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5분이라는 짧은시간에 세계의 사건이 연속으로 보도된 그 내용인 즉, 인천에서의 정육점 주인 살해사건, 서울의 택시 강도사건, 전주에서 있었던 구두타이 갈퀴사건 등이 다.

그냥 무심코 들어넘기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몰인정한 세태이기에 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이 사회가 자꾸 슬퍼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정육점에 들어가서 식칼로 주인을 마구 찔러 죽자하게 하고 1천여원과 고귀한 목숨을 바꿔버린 냉혈한이나, 운전수를 돌로 치고 흔해빠진 택시강도범이 된 실태나, 구두타이 소년들에게 하루 3백원씩을 갈퀴한 두명의 공갈범이나 모두모두 배덕하고, 전물한 만큼의 공포를 주는 흉악한 사람들도.

그뿐만 아니라 얼마전 서울에서는, 대낮에 버스속의 승객을 면도날로 위협하여 돈을 날치기 하고, 또 지적 많은 골목에서 폭행사건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들이다. 그리고 살벌한 세상이다.

그러나 과연 무서운 것은 무엇이며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우리의 주위에서 그런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몸을 한번 훑쳐 보고나면 그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단정짓고 만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식도 저버리고 그냥 방관해 버리고 만다면, 아니 그도 저도 아니고 범법하는 사회악에 만연되어 사뭇 무감각해져서 무관심을 표방해 버린다면, 언제까지 그런일이 우리주위에서 재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으며, 누가 막아주고 책임져 줄 것인가? 그 책임을 묻는다면, 도하 각 일간지의 사실과 칼럼들이 지적했듯이 사건의 주범들도, 보고만 방조한 자들도, 그리고 그것을 용납내지는 조장한 이사회 풍조도 모두 공범으로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에게로 돌아가 그런 사건들을 우리 자신에 비추어서 사고해 보고, 행동지침을 마련해 내는 일이라고 본다.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불이야」하고 외쳐대야 그때 비로소 돌아보고 자기몸만을 도사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얘기다.

불우한 이웃이건 나쁜 이웃이건 간에 서로 돕는 사회,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회, 불의를 수락하지 않는 사회,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회, 그런 사회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이다.

「현대의 인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정신적인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처한 조건에 대해서 불충실한 것이다. 즉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려는 태도이다.」라는 「오르테가·가세트」의 말을 기억하고, 삶을 완성하는 한 시민, 한 국민, 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적인, 진실로 인간적인 의미에서.....

〈김제천주교·대학생〉

요심이 (82) 김병오



□신간안내□

구약성서 이야기

마리아 정비로사 박흥근 역

신약성서 이야기

마리아 정비로사 저 박흥근 역

각 1200원

*
미
담
*

서울 김 마리아 할머니 무주성당 피목 공소에 올겐 1대 기증

각박하기만 하다는 세태에 흐뭇한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훈훈하게 해 주고 있다.

본당 신부님을 비롯한 모든 교우들이 감사하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보다 많이 있기를 빈다. 김 마리아 할머니 감사합니다.

현대 광고사

*아크릴·각종간판·아취·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카메라수리

송 흥 섭(토마스)

전화 ②9431

삼 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너거리 중간

◎타자기 수리 전문◎

전주 뉴 타자 학원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부동 605-1

원장 신 숭 무(바오로)

전화 ②6664

☆교우들의 집☆

영명 T.V 수리센터

■텔레비전, 전축, 라디오
중고품 매매, 판매, 수리

■출장비 무료

유 원 상(돈보스코)

전주 동부시장동 (전화 ②913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 : 2월 17일(월) 오후 7시, 중앙성당에서
2. J.O.C 수녀님의 선서식 : 2월 16일 중앙 분당 공식 미사시
성체회 본원 수녀님들께서 사회 활동의 일신을 담당하시려는 의지로 투사 선서식이 부 주교님 집전하에 거행됩니다.
3. 제 6차 공소 교리교사 연수회 : 2월 17일 오후 1시~20일, 가톨릭 센터
4. 레지오 마리에 간부(부단장, 회계) 연수회 : 2월 22-23일, 가톨릭 센터
5. 전주 교구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 : 2월 23일, 각 분당에서
6. 제 8차 꾸르실료 : 2월 25~28일, 가톨릭 센터
 - ① 참가 자희망자는 분당 신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꾸르실리스파 형제들은 "영적꽃다발"(빨랑까)을 많이 엮읍시다.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②3874 보좌 신부 박 종 상
사도 회장 김 영 진

1. 오늘 재의 수요일 행사가 미사후 있겠습니다.
2. 성모회 : 공식 미사후
3. 주일학교가 개강 하였아오니 신자 여러분께서는 귀 여운 자녀들을 많이 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철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3.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 다음 주일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증노 2가 : 송 바울라 3,000원
누계 : 1,913,702원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국민학교 아동 교리 개강
부모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2. 중·고등학생 특별 교리 : 2월 16일 오후 2시
3. 분당 합동 불 판공 성사 : 3월 6일.
※ 단 하루에 봅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훈

1. 신용조합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부녀부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3. 교무금 납부 요망

- 제정 고갈로 분당 운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4. 학생 교리 경시 대회 전원 참석 요망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아동 교리 : 2월 22일(토)부터 있음.
아동 교리가 있을 때는 오후 5시 미사 있음
2. 중·고 교리 경시 대회 : 2월 23일 오후 2시
교리 경시대회가 있으니 중·고등 학생 전원 필가
도구 지참
3. 반상회 : <19일> 7, 8반회 <17> 신홍리,
<18> 백암리, <19> 신리 <21일> 5반회,
4. 신용 조합 월례회 : 23일 공식 미사후
*축 결혼 : 22일 오전 11시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사도 회장 이 립 재

1. 미사 시간 변경
<평일> 월, 화, 목, 금 : 아침 6시
수, 토 :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4시
2. 교미씨음 월례회 : 오늘 오후 1시반
3. 교리교사 가정 방문 : 2월말까지 교리 교사 가정 방
문 실시
5. 애령회 특별 헌금 있음
5. 국민학교 1년 신입생 모집 <사진 포함>

금주의 숲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조 요섭(일주) 남문열 남전사 전화 ②5941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길부신태인유정	창제안인유정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청년회 대회의 밤 개회 사도회 월례회 어린이 교리반 실시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제 3 지구	창인동	창인동	반상회 본당 살림에 관심을 가지시다	
제 2 지구	대문월명동	아동동	본당 사무 감사 중·고 학생회 모의 시험 실시 전례 위원회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제 4 지구	중노송동	중노송동	성모회 애령회 간부 월례회 아동 교리반 개강 신용조합 월례회 반상회 교미씨음 월례회	
제 3 지구	고금여주현동	산산산	공소 교리교사 연수회 많은참석을 성우회 월례회 교리 경시대회 준비에 만전을! 성경 연구하여 부활을 맞이합니다		제 5 지구	남부장진동	남부장진동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김 마리아 할머니 오르게끔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교리 경시대회 준비를 열심히! 학생회 모인	